

연구논문

신라 원성왕의 대발해사(對渤海使) 파견과 그 의미

김진한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한국고대사 전공

historian77@hanmail.net

국문초록

790년 3월 신라는 백어를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백어는 사료상 확인되는 신라의 첫 대 발해사로, 파견 배경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대체로 신라의 불안한 내정이나 국제 정세의 변동을 고려해 살펴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원성왕 즉위 당시 대당관계를 중심으로 신라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신라의 내정과 관련해 김주원 세력의 동향이나 신라 북변 상황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만큼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았다. 선덕왕이 죽자, 김정신은 김주원과의 왕위계승분쟁에서 승리하여 왕위를 이었다. 하지만 원성왕이 마주한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잦은 재난과 이변으로 백성의 유망이 늘어나고 민심이 불안하였다. 대외적으로 발해 문왕은 재위한 지 54년째로 이미 노쇠하였다. 더욱이 동경으로 천도하였다. 신라로서는 발해의 동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김주원이 강릉 일대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 발해와 연계할 수 있는 불안요소로 작용했다. 신라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발해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 안에서는 발해를 새로운 외교 상대로 인정하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790년은 신라와 발해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원성왕, 백어, 문왕, 김주원, 자주외교

투고일 2026. 4. 3 심사일 2026. 5. 13 게재 확정일 2026. 5. 26

Research Paper

The Dispatch and Meaning of an Envoy to Balhae (渤海) of King Wonseong (元聖王) in Silla (新羅)

Kim, Jinhan

Instructor, Department of Hist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storian77@hanmail.net

Silla dispatched Baek-uh (伯魚) to Balhae in March 790. To date, discussions on why Silla sent an envoy are divided. In general, the focus is on Silla's unstable internal affairs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 present study examines whether Silla was diplomatically isolated in the early days of King Wonseong. Subsequently, attention is paid to the trends of the Kim Ju-won (金周元) forces and the situation in the north side of Silla. Upon the death of King Seondeok (宣德王), Kim Kyung-shin (金敬信) won a dispute with Kim Ju-won to succeed the throne. However, the situation King Wonseong faced was not easy. Frequent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vents had unsettled the public. Externally, Balhae's King Mun (文王) was already senile. Furthermore, the capital was moved to the east. Silla was forced to pay attention to the direction of Balhae. Kim Joo-won's presence in Gangneung (江陵) served as an anxiety factor that could be linked to Balhae at any time. Moreover, Silla seems to have sent an envoy to Balhae in consideration of this situation. On the other hand, the late Silla period is the time when the flow of self-reliance toward the Tang is observed. A trend seems to have existed within Silla to recognize Balhae as a new diplomatic partner.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790 represented a new starting point for the Balhae relationship with Silla.

Keywords: King Wonseong, Baek-uh, King Mun, Kim Ju-won, self-reliance

Received April 3, 2026 Reviewed May 13, 2026 Accepted May 26, 2026

I. 머리말

신라는 혜공왕(惠恭王)을 끝으로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간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혜공왕 대를 설정할 만큼 하나의 분기점으로 중시하였다. 하대의 출발점에 섰던 이는 선덕왕(宣德王)이지만 실질적으로 열었던 이는 원성왕(元聖王)이었다. 원성왕은 14년간 재위하면서 자신의 직계를 중심으로 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성왕 대 외교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은 790년 북국(北國)¹에 사신을 보낸 일이다. 현전하는 사료 가운데 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보냈음을 보여 주는 최초의 사례이다. 이에 따라 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파견한 배경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

첫째, 신라의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한규철은 신라가 내부적으로는 정치 불안과 발해·당·일본과 우호적이지 못함에 따른 외교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발해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보았다.² 임상선은 한규철의 견해를 받아들여 사신 파견을 통해 내부의 정치 불안을 타개하려 했다고 보았다.³ 최의광도 정치 불안과 외교 고립을 극복하려 사신을 보냈다고 했다.⁴

둘째, 국제정세의 변동과 관계없이 신라의 정치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신정훈은 원성왕 즉위반대세력과의 정치적 긴장관계를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와 함께 발해의 정치 정세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라고 했다. 다만 당과 발해·일본 모두 정국이 불안하였으므로 국제정세의 변동이 국내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었다고 했다.⁵ 강진원도 불안정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자국보다 ‘열등한’ 발해로 사행을 감행함으로써 정치적 활로를 모색했으며, 당이나

1 안정복은 이때 북국을 발해라고 하였다. 『東史綱目』第5上 元聖王 6年.

2 한규철, 『渤海의 對外關係史』(서울: 신서원, 1994), 109~115쪽.

3 임상선,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 『청계사학』 5(1988), 23쪽.

4 최의광, 「渤海 文王代의 對唐關係」, 『사총』 50(1999), 27쪽.

5 신정훈,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과주: 한국학술정보, 2010), 289~290쪽.

발해·일본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⁶

셋째,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는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로 천도한 발해의 정정(政情)을 살펴보고, 교린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고 했다.⁷

넷째, 송기호는 신라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위해 단행된 동경 천도를 축하하기 위한 사절로 추측했다. 812년 발해에 파견된 승정(崇正)의 급찬 관등보다 두 단계 높은 점도 이 시기 파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⁸

첫째와 둘째 견해가 신라의 내정 불안 타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셋째와 넷째 견해는 신라의 적극적인 외교 자세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상의 견해들은 대체로 타당한 면이 있으며, 접근방법에도 동의한다. 다만, 신라를 둘러싼 대외정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신라가 발해를 여전히 ‘열등한’ 존재로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8세기 후반 신라에서 발해를 적대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⁹

이 글에서는 원성왕 즉위 당시 대당관계를 중심으로 신라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아울러 신라의 내정과 관련해 김주원 세력의 동향과 신라 북변의 상황이 어떻게 발해사 파견과 연관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만큼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다.

II. 원성왕의 즉위와 대외관계

김경신(金敬信)은 나물왕 12세손으로 어머니는 박씨이다. 아버지는 일길찬(一吉澣) 효양(孝讓),¹⁰ 할아버지 이찬(伊澣) 위문(魏文)은 712년 중시(中侍)가 되

6 강진원, 「신라 하대 발해 使行의 지향과 결과」, 『중앙사론』 59(2023), 40~53쪽.

7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2002), 263~264쪽.

8 송기호, 「발해의 천도와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6(2004), 133~134쪽.

9 김진한, 「8세기 신라의 대발해(對渤海) 인식 변화와 그 배경」, 『한국학』 46-2(2023).

10 『三國史記』新羅本紀 元聖王 즉위조. 『三國遺事』에는 효양 大阿干을 명덕대왕으로 추봉했다고 나온다(『三國遺事』王曆 第一). 『三國遺事』원성대왕조에는 大角干(『三國遺事』紀異

었으며¹¹ 713년 연로함을 이유로 물러났다.¹² 김경신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증손자 김청명(金淸明)이 788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한 세대를 20년 정도로 계산할 때, 대략 720년 전후에 태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즉위할 때 나이는 60여 세로 추정할 수 있다.¹³

김경신의 행적은 해공왕 대 처음 확인된다. 김유신묘에서 시조대왕의 능까지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고 슬피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일이 벌어지자, 해공왕이 두려워 대신(大臣)을 보내 제사를 드리고 사과하게 했다.¹⁴ 이때 간 사람이 김경신이다.¹⁵ 김유신의 원혼을 달랠 인물로 김경신을 선택한 것은 그가 김유신가 문과 밀접했음을 말해 준다.¹⁶

김경신은 780년 선덕왕이 즉위하자, 상대등 자리에 오른다. 785년 선덕왕이 죽자, 김경신은 김주원(金周元)과 왕위계승 분쟁을 벌인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군신들이 후사에 대한 논의를 하여 선덕왕의 족자(族子)인 김주원을 세우려 했다. 마침 큰비로 알천이 불어 김주원이 건너지 못하자, 이를 하늘의 뜻으로 여겨 중의를 모아 김경신으로 잇게 하니 비가 그쳤고, 이에 국인(國人)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김주원은 상재(上宰)로 김경신은 이재(二宰)

第2 元聖大王), 탑상편에서도 大阿干(『三國遺事』 塔像 第4 整藏寺彌陀殿)으로 나온다.

- 11 『三國史記』新羅本紀 聖德王 11年, “三月 以伊浪魏文爲中侍”.
- 12 『三國史記』新羅本紀 聖德王 12年, “冬十月 中侍魏文請老 從之”. 『三國遺事』에는 위문의 이름이 ‘訓入’이며 관등도 匣干으로 되어 있다(『三國遺事』 紀異 第2 元聖大王, “追封祖訓入匣干爲興平大王”).
- 13 권영오는 원성왕의 증손자 김청명(애장왕)이 788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 785년 즉위 당시 고령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권영오, 「원성왕대 태자 책봉과 정국운영」, 『지역과 역사』 51(2022), 185쪽.
- 14 『三國史記』金庾信.
- 15 『三國遺事』 紀異 第1 味鄒王 竹葉軍.
- 16 이기백은 김유신의 사촌들이 관련된 伸冤運動에 협조적인 인물이 김경신이었기에 파견된 것으로 보았다[이기백, 『新羅政治社會史研究』(서울: 일조각, 1974), 249쪽]. 신형식도 김유신계가 원성계와 연결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았다[신형식, 『韓國古代史의 新研究』(서울: 일조각, 1984), 131쪽]. 김수태는 김경신과 결합된 세력으로 선덕왕 지지세력·박씨 세력·신김씨 세력·6두품 세력을 들었다. 김수태, 「新羅 宣德王·元聖王의 王位繼承」, 『東亞研究』 6(1985), 307~309쪽.

로 있었다. 김경신이 복두(幞頭)를 벗고 소립(素笠)을 쓰고 12현금을 타며 천관사(天官寺) 우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벼슬을 잃고 감옥에 갇힐 징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여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때 아찬 여삼(餘三)이 왕이 될 길몽이라고 풀이해 주었다. 김경신이 자신의 위로 김주원이 있다고 하자 몰래 북천신(北川神)에게 제를 지내라고 하여 이를 따랐다. 얼마 뒤, 선덕왕이 죽자 국인들이 김주원을 받들어 왕으로 삼고자 했다. 입궁하려는데 하천의 물이 불어 건널 수 없자, 김경신이 먼저 입궁하여 즉위하였다. 그리고 상제의 무리도 모두 내부하여 새로 등극한 왕을 향해 축하하였다.¹⁷ 『삼국유사』에서는 김경신이 왕이 될 꿈을 꾸었으며, 왕이 되고자 북천신에게 제를 지내는 모습이 추가되었다. 특히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다는 내용은 김유신과의 연관성을 추정케 한다.¹⁸

또한 『삼국유사』 원성왕조에는 김경신이 왕위 등극 이후 아버지로부터 만파식적(萬波息笛)을 건네받는 내용이 있다. 만파식적은 해룡(海龍)이 된 문무왕(文武王)과 33천의 하나로 천신이 된 김유신이 신라를 수성할 보배로 보내 준 대나무로 만든 것대¹⁹이다. 태종무열왕계와 김유신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²⁰

17 『三國遺事』紀異 第2 元聖大王.

18 황수영은 1974년 3월 경주시 교동 天官寺址 동편에서 출토되었다는 ‘大太角’ 石片을 김유신과 관련해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황수영, 『韓國金石遺文』(서울: 일지사, 1976), 60쪽]. 이근직은 ‘大太角’의 서체가 懸針篆으로 국내에서는 대체로 660년을 전후로 쓰이고 있다며, 당시 대대각이란 관직을 받고 이수 제액에 이를 쓸 수 있었던 인물은 김유신으로 천관사와의 관련성을 말해 주는 자료로 보았다[이근직, 『慶州 天官寺址 小考』, 『경주사학』 20(2001), 74~75쪽]. 한편, 윤철중은 우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龍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풀었다. 윤철중, 『身空詞腦歌 挿疑』, 『상명대학교 논문집』 14(1984), 140쪽.

19 첫대의 ‘첫’은 한자 笛에서 온 것이고 ‘대’는 우리말 대(작대기)다. 첫대는 가로로 부는 데 비해, ‘피리’는 한자 簫에서 나온 말로 세로로 분다. 신종원, 『삼국유사에 실린 한국의 왕권신화』(서울: 주류성, 2024), 339~340쪽 각주 118.

20 김상현은 왕위를 쟁취한 원성왕의 즉위가 ‘天意’이고 ‘天恩’에 의한 것임을 무열왕권의 상징인 만파식적의 신성함을 빌려 강조하고 정당화하였다고 했다. 김상현,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한국사연구』 34(1981), 17~18쪽. 이문기는 태종무열왕계의 정통성까지 계승했음을 강조하고 원성왕과 김유신계의 제후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을 것으로 보았다.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서울: 학연문화사, 2015), 39쪽.

원성왕은 즉위와 함께 안으로 오묘제(五廟制)를 개편²¹하고 태자 책봉, 상대 등·시중 임명, 문무백관의 작1급을 더하였다. 그리고 이때 패강진에서 적오(赤烏)를 바쳤다. 『사기』에 보이는 적오의 출현이 새 왕조의 확립과 그 왕조의 정당성이 천명(天命)에 의해 보장되는 상징이라고 볼 때,²² 이때 적오는 원성왕의 즉위가 천명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징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원성왕은 785년 책봉을 받았다.²³ 선덕왕이 782년 당에 사신을 보냈지만 책봉을 받은 것은 785년이였다. 원성왕은 선덕왕에 비해 빨리 책봉을 받음으로써 왕권을 안정화시켜 나갔다.

21 『三國史記』新羅本紀 元聖王 元年, “二月 … 毀聖德大王開聖大王二廟 以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及祖興平大王考明德大王爲五廟”. 五廟制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혜공왕 대 ‘始定’되었다고 나오지만 무열왕 대[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下(서울: 을유문화사, 1995), 163쪽 각주 5; 이문기,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백산학보』 52(1999), 799~800쪽], 문무왕 대[황운룡, 「新羅太宗廟號의 紛糾始末」, 『동국사학』 17(1982), 11~12쪽], 신문왕 대[邊太燮, 「廟制의 變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1964); 신종원,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사학연구』 38(1984), 30쪽; 濱田耕策, 앞의 책(2002), 37~40쪽]로 보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 원성왕 대 오묘제 개편의 의미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이중옥은 원성왕 자신을 중심으로 한 왕실인 부계 가계의 존엄성을 높인 것으로 보았다. 이중옥, 「新羅時代의 血族集團과 相繼」, 『역사학보』 121(1989), 60쪽. 濱田耕策은 혜공왕 대 제도를 준수하면서도 원성왕은 무열왕의 왕통에서 벗어났으므로 시조대왕은 제쳐 두고 무열왕과 문무대왕의 신주는 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겨 둠으로써 신라의 국가적 입장에서 왕위의 정통화를 꾀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濱田耕策, 위의 책(2002), 258~259쪽. 채미하는 나물왕계로서 왕위에 오른 원성왕이 시조대왕을 통해 김씨왕실의 실질적인 왕위계승권자임을 내세웠으며,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신위를 모신 것은 삼국통일의 큰 공뿐만 아니라 김주원 세력을 포섭하거나 연계를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 채미하, 「新羅 下代의 五廟制」, 『종교연구』 25(2001), 125~126쪽. 박남수는 선덕왕 대 비혈연의 소목 배열이나 逆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직계의 祖·考로 昭穆을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박남수, 「新羅 宗廟制의 정비와 운영」, 『신라사학보』 49(2020), 29쪽. 안주홍은 원성왕이 나물왕계와 태종무열왕계라는 중첩된 계보의식을 가졌으며, 직계2친을 종묘에 부모해 새로운 왕통의 개창을 표방하려 했다고 보았다. 안주홍, 「신라 하대 원성왕대의 宗廟와 瑞祥」, 『한국고대사연구』 109(2023).

22 이희덕,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서울: 해안, 1999), 283쪽.

23 『冊府元龜』(965) 外臣部10 封冊3, “是年 新羅王金良相卒 其上相金敬信爲王 詔令襲其官爵 敬信 卽從兄弟也”. 권덕영은 785년 당에서 김양상을 책봉하였으나 선덕왕이 죽고 김경신이 즉위하자 선덕왕에게 준 관작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했다고 한다. 권덕영,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신라문화』 25(2005), 102~103쪽.

표1-8세기 중후반 신라 및 발해의 대외건사표²⁴

왕	연도	신라		발해	
		당	일본	당	일본
혜 공 왕	767	←7		←7, 8, 9, 11, 12	
	768	봄→ ←9			
	769		←11	←3, 12	
	770				
	771				←6
	772	←1		←12, ? ²⁵	
	773	←4, 6		←4, 6, 11, 윤11, 12	←6
	774	←4, 10	←3	←1, 12	
	775	←1, 6		←1, 5, 6, 12	
	776	←7, 10			←12
	777			←1, 2, 4, 12	5→
	778				←9
	779		2?→←10		2→ ←9
	780			←10	
선 덕 왕	781				
	782	←윤1		←5	
	783				
	784	← ²⁶			
원 성 왕	785	1→			
	786	←4			←9
	787				
	788				
	789				
	790	←3			
	791			←1, 8 ²⁷	

24 →: 당 및 일본의 건사, ←: 신라 및 발해의 건사, 숫자는 파견된 달[月] 표시.

25 『舊唐書』(11) 代宗, “是秋稔 迴乾吐蕃大食渤海室韃靺鞨契丹奚牂柯康國石國並遣使朝貢”.

26 『祖堂集』(17) 元寂禪師道義, “雪岳陳田寺元寂禪師 嗣西堂 在溟州 師諱道義 俗姓王氏 北漢郡人 … 因瑞出家 法号明寂 以建中五年 歲次甲子 隨使韓祭号金讓恭 過海入唐 直往臺山 而感文殊 …”. 濱田耕策은 784년 김양공의 사행을 혜공왕으로부터 선덕왕으로의 왕위 교체 시 내정의 혼란을 먼저 수습한 뒤 선덕왕의 책봉을 청하는 사명을 띤 것으로 추정하였다. 濱田耕策, 앞의 책(2002), 243쪽.

27 『舊唐書』(199) 渤海靺鞨.

〈표1〉은 해공왕 대부터 원성왕 대 초까지 『삼국사기』·『책부원귀(冊府元龜)』·『속일본기(續日本紀)』 등을 참고하여 당 및 일본과의 외교교섭 기사를 정리해 본 것이다. 신라 중대에 비해 대당 사신 파견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신라의 외교가 고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발해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발해의 대당교섭은 안사(安史)의 난을 겪은 당의 혼란으로 사신 파견을 중단하였다가 760년대 후반부터 다시 활발해져 782년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 하지만 791년 사신 파견이 재개될 때까지 거의 10년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신라는 안사의 난 당시에 당 사신을 보냈다. 3~4년의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견사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782·784·786·790년 등 최소 4차례 입조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당의 사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763년 안사의 난이 진압되었지만 그 여파는 이어졌다. 대체로 번진들은 서로 연대하며 당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 견제하였다.²⁸ 덕종 대(779~805) 당은 781년부터 784년까지 매년 번진의 반란을 겪었다. 서방에서는 토번(吐蕃)이 지속적으로 당을 위협하고 있었다. 당은 내환의 대책을 우선하고, 토번에 양보하여 회맹을 취하는 등 외환의 완화에 힘썼다.²⁹ 당 내부문제로 인해 대외교섭이 여의치 않은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라의 대당교섭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대당관계가 고립적이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신라의 대일관계는 어떨까? 『속일본기』에는 신라의 대일외교를 보여 주는 사료가 여럿 실려 있다. 해공왕 대인 769·774·779년 세 차례 사행이 확인되며, 790년 이전까지 대일사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국 간 교섭의 중단 배경으로 신라 내정의 혼란을 지적하는 의견이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³⁰

28 정병준,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의 번진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24), 80~81, 92쪽.

29 菅沼愛語,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廣島: 溪水社, 2013), 265~267쪽.

30 今西龍은 “환무천황 즉위로부터 延曆 10년(791)까지는 신라로부터 사신이 오지 않은 것 같다. 그 한 이유는 신라의 衰微 內亂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했다[今西龍(지), 김선숙(역), 『新羅 中代・下代の 外國關係』, 『신라사학보』 5(2005), 247쪽].鈴木靖民은 신라와의 공적 관계가 780년 끊어졌던 것은 신라 해공왕 대 이후 지배층 내부의 항쟁, 농민 반

혜공왕 피살부터 원성왕 즉위까지 일련의 정치적 혼란은 있었지만 원성왕은 이후 내정을 수습해 가고 있었다. 대일관계는 이전부터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교섭을 벌이는 동안에도 잦은 마찰로 인해 서로 사신을 돌려보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를 신라 측 내정 혼란에 따른 교섭 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삼국유사』에는 원성왕 대 만파식적을 둘러싼 일본과의 마찰 내용을 전한다. 786년 10월 11일 일본이 신라를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만파식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돌려가거나 787년 7월 7일 일본이 사신을 보내 만파식적을 보려 했지만 원성왕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사가 그것이다.³¹ 이 설화에서 간취되는 원성왕의 대일외교 태도는 냉랭할 뿐 아니라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³² 대일외교는 자연스레 중단되었지만 대당외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라의 외교를 고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III. 백어의 북국 사행과 김주원 세력의 동향

790년 3월 일길찬 백어(伯魚)가 북국에 사신으로 갔다.³³ 이때 백어는 어떤 임

란, 지방호족 성장이 있었던 사태에도 의할 것이라고 했다(鈴木靖民,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1985), 79~80, 92쪽). 이성시는 762년을 고비로 국제적으로 신라·발해·일본 사이에 긴장이 급격히 완화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당, 신라의 내부 혼란, 일본에서 나카마로의 실각에 의한 정치 변동 등이 동아시아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신라는 779년 사절을 끝으로 일본과의 공적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당에 대한 조공도 778년 이후로 보이지 않게 된다고 했다. 이성시(저), 김창석(역),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서울: 청년사, 1999), 188~189쪽.

31 『三國遺事』紀異(2) 元聖大王.

32 酒寄雅志는 선덕왕 이후 왕권이 안정되고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취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공적 교섭이 신라 측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보았다[酒寄雅志, 「日羅交涉終焉をめぐる事情」, 『朝鮮史研究會會報』74(1984), 18~20쪽; 이상은 石井正敏, 『古代の日本列島と東アジア』(東京: 勉誠出版, 2017), 149쪽에서 인용]. 이에 대해 石井正敏은 민간상인이 대일무역의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위에서 매번 마찰이 일어나고 조공국으로서의 행동을 강요받는 사자의 파견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石井正敏, 위의 책(2017), 149쪽.

33 『三國史記』新羅本紀 元聖王 6年, “三月 以一吉浪伯魚使北國”.

무를 가지고 발해로 떠났던 것일까? 여기서 ‘백어’라는 이름이 주목된다. 백어는 공자의 아들인 공리(孔鯉)의 자(字)이다. 이름으로 미뤄 보건대 유학적 소양을 갖춘 문신관료가 아닐까 생각한다.³⁴ 당시 문신으로 출사(出仕)하는 길은 당으로 유학하거나 국학(國學)에서 수학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원성왕은 788년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다.³⁵ 독서삼품과는 국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국학의 입학생은 주로 6두품 출신이었다.³⁶ 특히 오경과 삼사, 제자백가 등에 박통한 자는 초탁(超擢)하기로 했다. 다만, ‘국학이 설립되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나서야 국학생의 임용법이 정비될 정도로 늦어진 데는 국학생에 비해 건당유학생이 임용에서 우대를 받는 경향과 사람을 씬에 골품을 따지는 것이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³⁷으로 보기도 한다. 789년 자옥(子玉)이 문적(文籍)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관 임용에 반대하는 집사사(執事史) 모초(毛肖)에게 시중(侍中)이 당에 유학한 학생이었음을 들어 찬성하자, 원성왕이 이를 따랐다³⁸고 하는 대목에서도 원성왕의 지향점을 알 수 있다.³⁹ 백어도

34 진흥왕 직전 무렵부터 儒學식 이름이 점점 확산하고 있었으니, 金后稷이나 金春秋·金庾信은 그 事例이다. 대체로 이름을 지을 때, 특정 인물의 이름을 선택한 것은 그 대상 속에 담긴 속성까지도 닮기를 희망했기 때문일 것이다[주보돈, 「김춘추와 자장」, 『신라문화』 49(2017), 12~13쪽]. 신라가 당으로부터 君子國으로 불릴 만큼 유학이 성행한 나라로 인식되었던 저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백어’란 이름 역시 무심히 지나치기 어렵다.

35 『三國史記』新羅本紀 元聖王 4年, “春 始定讀書三品 以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 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以弓箭選人 至是改之”.

36 이기백, 『新羅思想史研究』(서울: 일조각, 1997), 229~230쪽. 이에 대해 전덕재는 국학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 진골귀족의 입학을 적극 유도하여 국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도로 독서삼품과를 제정하였다고 정리하였다[전덕재, 「신라의 독서삼품과」, 『한국사시민강좌』 46(2010), 11쪽]. 하일식은 관료선발에서 유학적 소양을 우선하기 위해 독서삼품과를 정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진골귀족들이 부릴 수 있는 중하급 관료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관료제 운영에 가져온 변화도 미미한 것으로 보았다. 하일식,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 37(2000), 88~89쪽.

37 濱田耕策, 앞의 책(2002), 103~104쪽.

38 『三國史記』新羅本紀 元聖王 5年.

39 주보돈은 대당유학생 동용에 대한 반발 분위기를 전해 주는 것으로 지배층 주류의 일방적 대당의존자세와 정책에 대한 반발이 널리 번져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원성왕 대 무렵 사정이 관연히 달라지기 시작하여 대당유학생을 우대하던 기존 관료 선발 방법에 대해 반발이 싹트고 있었다고 했다. 주보돈, 「신라의 ‘東京’과 그 의미」, 『대구사학』 120(2015), 29~30쪽.

도당유학생이거나 국학 출신으로 추정된다.

백어가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관등은 제7위 일길찬이었다. 6두품이라면 관등을 고려했을 때, 중년의 노련한 관료로 볼 수 있고, 진골이라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인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760년부터 790년 사이 일본에 파견했던 사신의 지위와 비교해서 살펴보자.

〈표2〉는 『속일본기』에 보이는 대일 사신 명단을 정리해 본 것이다. 표에서 보듯, 제10위 대나마(1명), 제9위 급찬(3명), 제8위 사찬(2명)까지 확인된다. 대체로 신라는 제9위 급찬 위주로 사신을 꾸렸다. 처음 신라가 대조영(大祚榮)에게 대아찬의 관등을 주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사신의 관등이 낮지 않다.

표2-신라의 대일 사신 명단

연월	소속 관부	관등	사신명
760. 9		급찬(9)	김정권
763. 2		급찬(9)	김체신
764. 7		대나마(10)	김재백
769. 11		급찬(9)	김초정
774. 3	禮府	사찬(8)	김삼현
779. 10		살찬(8)	김난손

한편, 백어의 사행에 앞서 790년 정월 웅천주에서 적오(赤烏)를 바쳤다고 했다.⁴⁰ 원성왕 즉위 당시 패강진의 적오 헌상 이후 두 번째이다. 이때 적오의 진상을 ‘무열왕계 김주원을 밀어내고 왕권을 장악한 원성왕의 정통성 확보와 관련지어 해석’⁴¹하기도 한다. 사행을 앞두고 일어난 상서로운 징조는 이번 사행에 대한

40 『三國史記』新羅本紀 元聖王 6年, “春正月 … 熊川州進赤烏”.

41 이희덕, 앞의 책(1999), 283쪽; 신정훈,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서울: 혜안, 2013), 137~138쪽. 한편, 손흥호는 원성왕의 왕권 강화에 대한 치적을 경축한다는 의미로 보았다 [손흥호, 「신라 하대 赤烏 출현의 정치적 의미」, 『영남학』 85(2023), 139쪽]. 이장웅은 옛 백제 지역까지 미친 원성왕의 중앙집권력과 이들 지역민의 통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장웅, 「신라 元聖王의 〈身空 詞腦歌〉와 관련 설화의 역사적 이해」, 『영남학』 87(2023), 165쪽.

긍정적 신호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성왕이 사신을 보낸 배경으로 몇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발해의 내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백어가 파견되었을 때 발해 수도는 동경용원부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천도 시기로는 여러 견해⁴²가 있지만 대체로 780년대 후반으로 본다. 천도 시기와 관련해 이 무렵 발해의 대당·대일 사행이 주목된다. 앞서 〈표1〉에서 보듯, 발해는 782년 건사 이후 거의 10년 만인 791년 정월에 대당 사신을 보냈다. 『신당서』에 정원(貞元: 785~804) 때 발해가 동경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도 이 사행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786년 9월에는 대일 사신 이원태(李元泰) 일행이 출우국(出羽國)에 도착했다. 이원태 일행을 보낸 목적⁴³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지만 7년 만의 사행이란 점에서 발해의 천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로 780년대 후반을 천도 시기로 짐작해 본다.

790년은 문왕이 재위한 지 54년째 되는 해이다. 발해가 동경으로 천도한 이유⁴⁴에 대해 궁금했을 것이다. 특히, 문왕 사후 불과 3년 사이에 세 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매우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왕 재위 말 발해 내정이 불안정했음

42 785년설[金毓黻, 『渤海國志長編』(7) 大事表 第3; 방학봉, 「渤海는 무엇 때문에 네 차례나 首都를 옮겼는가」, 『백산학보』 39(1992), 41~43쪽; 孫玉良, 「渤海武王大武藝 附: 文王大欽茂」, 『東北歷史人物傳記 古代 卷上』(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6); 酒寄雅志, 『渤海と古代の日本』(東京: 校倉書房, 2001), 144쪽; 권은주, 「8세기말 발해의 천도와 북방민족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1(2011), 220쪽; 윤현철, 「발해국 동경용원부의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6(2007), 60~62쪽]과 780년대 후반설[鳥山喜一, 『渤海史上の諸問題』(東京: 風間書房, 1968), 112쪽; 송기호, 앞의 논문(2004), 124~125쪽]이 가장 유력하다. 이 밖에 785년부터 786년 초반으로 추정하는 견해[임상선, 앞의 논문(1988), 43~45쪽]나 790년 3월 이후 가능성도 열어 두는 견해[赤羽目匡由, 『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東京: 吉川弘文館, 2011), 42~43쪽 각주 17]가 있다.

43 구난희는 발해의 도착지가 대와(出羽)인 점을 주목하여 일본 조정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 교역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실리적 목적과 일본의 불편한 심기를 이용해 교섭의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려는 부가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 구난희, 『발해와 일본의 교류』(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89쪽.

44 酒寄雅志는 문왕이 상경 지역을 세력 기반으로 한 國人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왕권의 쇄신을 꾀하기 위해 동경 천도를 단행한 것으로 보았다[酒寄雅志, 앞의 책(2001), 70쪽]. 濱田耕策은 상경에서 가까운 가족을 다섯이나 잃은 불행도 그 요인 중 하나로 추정하였다[濱田耕策(저), 신영희(역), 『발해국 흥망사』(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105쪽]. 송기호는 신라와의 교류를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송기호, 앞의 논문(2004), 133~134쪽.

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왕의 노쇠(老衰)를 감안한다면 언제든 발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국경을 마주한 신라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김주원 세력에 대한 경계이다. 김경신과의 왕위계승분쟁에서 패배한 김주원은 뒤로 물러나게 된다.⁴⁵ 『삼국사기』 김양전에 따르면, “증조 김주원 이찬, 조 종기 소판, 고 정여 파진찬이 모두 세가(世家)로서 장상(將相)이 되었다”고 할 만큼 김주원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렇다면 김주원 세력은 원성왕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이기백은 김주원 가계가 시종직에 머물며 진골 중에서 격이 떨어졌지만, 원성왕 가계를 핵심으로 한 신라 하대 지배세력에 참여하였다⁴⁶고 보았다. 또 중앙정부에서 반란을 대비해 회유책의 일환으로 김주원의 직계 비속(卑屬)을 남겨 정치활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⁴⁷ 김주원의 동향과 관련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주목할 만한 사료가 남아 있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살펴본 바 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 “김주원은 태종왕(太宗王)의 손자이다. 처음 선덕왕(宣德王)이 죽었는데 후사가 없었다. 군신들이 정의대후(貞懿太后)의 교(敎)를 받들어 주원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 족자(族子)인 상대장등(上大長等) 경신이 사람들을 위협하여 자립하고 먼저 궁으로 들어가 칭제(稱制)하였다. 주원은 화(禍)가 두려워 명주(溟州)로 물러났다. 끝내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2년 뒤 주원을 명주군왕(溟州郡王)으로 봉하고 명주에 속한 삼척(三陟)·근을어(斤乙於)·울진(蔚珍) 등을 떼어 식읍(食邑)으로 삼고, 자손은 부(府)로 향(鄉)을 삼았다.”⁴⁸

45 김정숙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족보, 溟州郡王神道碑文을 근거로 김주원이 자진하여 명주로 물러났다고 했다. 김정숙, 「金周元世系の 成立과 그 變遷」, 『백산학보』 28(1984), 169~170쪽.

46 이기백, 『新羅政治社會史研究』(서울: 일조각, 1974), 186쪽.

47 주보돈,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1(2008), 238~239쪽.

48 『新增東國輿地勝覽』(44)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人物 新羅, “金周元 太宗王之孫 初宣德王薨無嗣 群臣奉貞懿太后之敎 立周元爲王 族子上大長等敬信 劫衆 自立先入宮稱制 周元懼禍 退居溟州 遂不朝請 後二年封周元爲溟州郡王 割溟州翼領三陟斤乙於蔚珍等官爲食邑 子孫因以府爲鄉”.

정의태후는 선덕왕의 어머니로 성덕왕(聖德王)의 딸이다. 정의태후는 김주원을 왕으로 지목했다. 김주원은 무열왕의 6대손으로 알려져 있다. 정의태후는 무열왕의 4대손이 된다. 정의태후의 지목에 개의치 않은 채 김경신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칭제했다.

안정복(安鼎福)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사료를 인용하여 786년 김주원이 명주군왕에 봉해졌으며, 명주 등을 식읍으로 삼아 그 자손들이 대대로 세습하였다고 했다.⁴⁹⁾ 이에 대해 원성왕이 김주원에게 영동 지역 일대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그 대가로 신라 동북방과 동해연안의 경비를 맡긴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⁵⁰⁾가 있다.

김주원 세력에 대한 배려로 식읍을 내렸다는 점은 가능하겠지만 원성왕이 독자적 지배권을 인정했음은 의문이다. 그런 면에서 790년 정월 김주원의 아들 종기(宗基)를 시중으로 삼고 두 달 뒤 백어를 파견한 사실이 주목된다. 당시 사신은 자연스레 강릉을 지나게 된다.⁵¹⁾ 강릉 일대에 자리한 김주원 세력이 발해와 연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당시 발해가 천도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경 천도로 신라가 받게 될 압박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발해의 천도와 김주원의 강릉 이거(移居)라는 두 사건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이러한 일

49 『東史綱目』(5) 上, 원성왕 2년. 井上秀雄은 김주원이 溟州로 은퇴한 것은 지방세력을 중시했던 태종무열왕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당시 살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했다(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東京: 東出版, 1974), 388쪽]. 한편, 김두진은 원성왕이 명주군왕으로 봉하기 전부터 명주 등 영동 지역은 김주원의 세력권 속에 들어 있었다고 했다. 김두진, 『통일신라의 사회변동과 종교사상』(서울: 일조각, 2024), 287쪽.

50 김창겸, 「新羅 '溟州郡王'考」, 『成大史林』 12·13(1997). 이재석도 김주원(계)의 溟州(郡)國은 지정학적으로 발해뿐만 아니라 對발해-일본관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울릉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재석, 「9세기 일본 사료 속의 울릉도·細羅國」, 『한일관계사연구』 69(2020), 28~29쪽]. 한편, 박춘식은 김주원이 원성왕의 중앙정부와 타협하여 명주 지배에 대한 승인을 받는 대신 왕위계승권자의 탈락과 정변에 승복한 것으로 이해했다. 박춘식, 「羅末麗初의 食邑에 對한 一考察」, 『史叢』 32(1987), 46쪽.

51 백어는 왕경을 출발해 삼척과 강릉을 지나 고성·안변으로 이어지는 동해안로를 따라 이동했을 것이다. 이 길을 신라 5통 가운데 '北海通'[井上秀雄, 앞의 책(1974), 402쪽: 서영일, 「新羅 五通考」, 『백산학보』 52(1999), 614쪽]이나 '東海通'[이도학, 「古代國家의 成長과 交通路」, 『국사관논총』 74(1997), 175쪽 각주 153; 이용현, 「통일신라 기간도로 5통의 방향과 범주」, 『민족문화연구』 97(2022), 143~145쪽]으로 보고 있다.

련의 흐름 속에서 김종기를 시중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 세력에 대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달리 보면 견제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신라의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이 발해와 국경을 접한 니하 일대이다. 강릉을 경유하면서 그들의 동태를 지켜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신라의 동북경 상황을 살펴보자.

B. 장인(長人)은 인류(人類)로 키가 세 길이며, 톱 같은 어금니와 갈고리 같은 손톱에 검은 털이 몸을 덮고 있다. 화식(火食)을 하지 않고 짐승을 씹으며 혹 사람을 잡아다가 먹는다. 부인(婦人)을 얻으면 의복을 짓게 한다. 그 나라는 산이 수십 리에 걸쳐 있고 골짜기에 철합(鐵闔)을 걸고 관문(關門)이라 부른다. 신라에서는 항상 노사(弩士) 수천을 주둔시켜 지키고 있다.⁵²

C. 봄, 북진(北鎭)에서 아뢰기를 ‘적국인(狄國人)이 진(鎭)에 들어와 편목(片木)을 나무에 걸어놓고 돌아갔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취하여 바쳤다. 그 나무에 15자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르기를, ‘보로국(寶露國)과 흑수국(黑水國) 사람이 함께 신라국(新羅國)과 화통(和通)하러 한다’고 했다.⁵³

D. 왕 즉위 11년 을해에 당나라 사신이 서울에 와서 한 달을 머물다가 돌아갔다. 하루 뒤에 두 여인이 내정(內庭)에 나와 아뢰기를, “첩 등은 동지(東池)와 청지(靑池)[청지는 곧 동천사(東泉寺)의 샘이다. 사기(寺記)에 이르대, 샘은 동해의 용이 왕래하며 법(法)을 듣는 땅이다. 절은 곧 진평왕이 조영한 바이니 오백성중(五百聖衆)과 오충탑, 전민(田民)을 헌납했다고 한다.]에 있는 두 용의 처입니다. 당사(唐使)가 하서국(河西國) 사람 두 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지아비 두 용 및 분황사 우물 등 세 용을 작은 물고기로 바꾸어 통에 넣어 펴박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두 사람에게 칙(勅)을 내려 우리 지아비 등은 호국용이니 머무르게 하소서.” 왕이 좇

52 『新唐書』(220) 新羅, “長人者 人類長三丈 鋸牙鉤爪 黑毛覆身 不火食 噬禽獸 或搏人以食得婦人以治衣服 其國連山數十里 有峽 固以鐵闔 號關門 新羅常屯弩士數千守之”.

53 『三國史記』新羅本紀 憲康王 12년(886), “春 北鎭奏 狄國人入鎭 以片木掛樹而歸 遂取以獻 其木書十五字云 寶露國與黑水國人 共向新羅國和通”.

아가 하양관(河陽館)에 이르러 친히 연회를 베풀고 하서인(河西人)에게 칙하기를 “너희 무리가 어찌하여 우리 세 용을 취하여 이곳에 이르렀는가.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극형을 가할 것이다.” 이에 세 물고기를 내어 바치자 세 곳에 놓아주게 하였다. 각기 한 길 남짓 물이 솟구치며 기뻐서 뛰다가 가버렸다. 당인(唐人)이 왕의 명성(明聖)에 감복하였다.⁵⁴

사료 B 장인 기사는 『태평광기(太平廣記)』 권481 신라조⁵⁵에 근거하였음이 밝혀졌다. 대체로 ‘8세기 신라와 발해의 군사적 긴장을 배경으로 한 신라 동북 변경 발해영역민에 대한 신라인의 인식’⁵⁶으로 보고 있다.

사료 C는 886년 보로국과 흑수국 사람들이 신라와 통하려 함을 보여 주는 기사이다. 원성왕 대 기사는 아니지만, 여기에 보이는 보로국과 흑수국은 말갈이 주집단으로 발해와 말갈제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8세기 중엽에는 말갈 일부가 함경도 일대로 사민되었던 것으로 본다. 일찍이 미카미 쓰기오(三上次男)는 발해 무왕이 흑수말갈을 정벌한 뒤 후고를 덜고 신라도 견제하기 위해 신라 동북 경 일대로 이주시켰다고 했다.⁵⁷ 발해의 대말갈정책이나 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

54 『三國遺事』 元聖大王, “王即位十一年乙亥 唐使來京留一朔而还 後一日有二女進內庭奏曰妾等乃東池·青池青池即東泉寺之泉也 寺記云 泉乃東海龍往來聽法之地 寺乃真平王所造 五百聖衆五層塔并納田民口 二龍之妻也 唐使將河西國二人而來 呪我夫二龍及芬皇寺并等三龍變為小魚筒貯而故 願陛下勅二人留我夫等護國龍也 王追至河陽館親賜享宴 勅河西人曰 爾輩何得取我三龍至此 若不以實告必加極刑 於是出三魚獻之 使放於三處 各湧水丈餘喜躍而逝 唐人服王之明聖”.

55 『太平廣記』 (481) 蠻夷2 新羅, “新羅國 東南與日本隣 東與長人國接 長人身三丈 鋸牙鉤爪 不火食 逐禽獸而食之 時亦食人 裸其軀 黑毛覆之 其境限以連山數千里 中有山峽 固以鐵門謂之鐵關 常使弓弩數千守之 由是不過 出紀聞”.

56 이성시(저), 이병호·김은진(역),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서울: 삼인, 2022), 424~426쪽.

57 三上次男, 『新羅東北境外における黒水・鐵勒・達姑等の諸族について』, 『高句麗と渤海』(東京: 吉川弘文館, 1990), 250~251쪽. 이러한 三上次男의 견해는 후속 연구에서도 기본 논리가 이어졌다. 노태돈은 725년 이후부터 750년대 초반 사이에 발해 조정은 발해 팽창에 저항하던 북방의 말갈 부족 일부를 함경도 남부 신라와의 접경지역에 강제 이주시켜 그 세력을 분산시키고, 일면으로는 신라 세력의 북진에 완충 벽을 세우려 했다고 보았다 [노태돈, 『고구려 발해사 연구』(과주: 지식산업사, 2020), 306~314쪽]. 赤羽目匡由는 신라 말 고려 초에 흑수(黒水)·철록(鐵勒)·달고(達姑) 등 말갈제족의 동향이 산견되는데 흑수

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D 기사는 795년 원성왕 대 당나라 사신이 하서국 사람과 함께 와 두 용을 잡아갔다는 설화를 전한다. 여기에 보이는 하서국을 명주로 보는 의견⁵⁸이 다수이지만 당에 종속된 나라로 보는 의견⁵⁹도 있다. 설화에 따르면 하서국 사람이 당 사신과 함께 용을 잡아가고 이를 다시 원성왕이 제지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⁶⁰ 원성왕은 두 하서국인에게 칙을 내리며, 극형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당에 복속된 하서국인에게 원성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면 이때 언급된 하서국은 ‘명주’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이야기가 전하는 내용은 신라 중앙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로 읽힌다.

니하 일대는 신라도의 종착지이면서 발해로 가는 출발지이기도 하다. 두 나라 국경지역으로 군사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경에 가까운 명주 일대에 자리한 김주원 세력의 동향을 신라가 외면하기는 어렵다.

셋째, 북방 개척에 따른 발해의 동정을 살피고 잦은 재해로 인한 내부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신라는 서북 방면에 대한 개척에 일찍이 나섰다. 신라의 예성강 이북 지역에 대한 영역화는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땅을 인정받은

말갈 등 제족의 일부가 8세기 중엽 발해의 지배 아래 복속되었으며, 발해는 신라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을 옮겼던 것으로 보았다[赤羽目匡由, 앞의 책(2011), 36~39쪽]. 古畑徹은 보로국과 흑수국은 8세기 중반 북방에서 신라와의 경계지대에 이주되었던 흑수말갈인 집단으로, 그들을 본거지에서 떼어 놓아 이반을 막는 것과 함께 대신라방위에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古畑徹, 『渤海國とは何か』(東京: 吉川弘文館, 2018), 69쪽.

58 최근영은 명주를 거점으로 세력 기반을 구축한 김주원이 하서국을 칭할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보았다[최근영, 「後三國 成立背景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26(1991), 17쪽]. 김갑동은 김주원이 강릉 일대의 대세력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았고, 하서국으로 불린 강릉은 지리적으로 해안을 따라 경주에 쉽게 다다를 수 있는 만큼 신라왕실에 잠재적 위협 세력이 되었다고 했다[김갑동, 「나말려초 강릉호족의 성립배경과 존재양태」, 『강릉학보』2(2008), 105쪽]. 박성해도 하서국을 명주로,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하서국’ 사람은 김주원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박성해, 『삼국유사』「원성대왕」조의 원성왕 형상, 『동방문화비교연구』7(2017), 49~50쪽.

59 김홍삼, 「신라말 崛山門 梵日과 金周元系 관련설의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50(2008), 303~304쪽.

60 김경애는 명주의 무원왕계 김주원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구한 원성왕의 존재를 부각시켜 원성왕권의 위엄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 설화가 형성되었다고 했다. 김경애,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下代 王室의 成立」, 『한국고대사연구』41(2006), 294쪽.

735년⁶¹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경덕왕은 748년 아찬 정절(貞節) 등을 보내 북변(北邊)을 시찰하고 대곡성 등 14개 군현을 두었다.⁶² 대곡성은 황해도 평산군으로 지정⁶³되고 있는 만큼 이 일대에 대한 영역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762년 경덕왕은 오곡(五穀)·휴암(鵠巖)·한성(漢城)·장새(獐塞)·지성(池城)·덕곡(德谷) 6성을 쌓고 태수를 두었다.

신라의 북방 개척은 선덕왕으로 이어진다. 781년 패강 남쪽 주군을 안무하였으며, 782년에는 왕이 한산주를 순행하고 패강진(溟江鎭)으로 민호(民戶)를 옮겼다. 783년에는 아찬 체신(體信)을 대곡진군주(大谷鎭軍主)로 삼았다.⁶⁴

한편, 원성왕 재위 초반 이번이 잦았다. 재위 3년 일어난 서울에서의 지진, 태백이 낮에 보이는 현상, 누리로 인한 곡식 피해, 일식 등이 있었다. 4년에는 가뭄과 누리로 도적이 봉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5년에는 일식, 한산주 백성이 굶주렸으며, 7월 서리로 곡식이 상했다. 이러한 잦은 재이(災異)는 민심의 불안을 더욱 재촉하는 것이었다. 이에 원성왕은 자연재해에 따른 백성들의 유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⁶⁵ 790년 정월 벽골제를 증축하며 7주의 백성을 징발하

61 『三國史記』新羅本紀 聖德王 34年.

62 『三國史記』新羅本紀 景德王 7年, “遣阿浪貞節等 檢察北邊 始置大谷城等十四郡縣”. 이기동은 748년 예성강 연안 일대에 4개 군현을 설치하고, 762년 6개 군현을 증설하고, 헌덕왕 대 다시 북방에 진출하여 取城郡 및 그 領縣 3개를 신설하여 대동강 남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기동, 『新羅 下代の 溟江鎭』, 『한국학보』 4(1976), 7~8쪽.

63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上(서울: 을유문화사, 1995), 180쪽.

64 선덕왕 대 패강진 개척의 의미에 대해 이기동은 ‘삼국통일전쟁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무거운 부역노동과 장기간에 걸친 재해로 농민층은 몰락해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변경 개척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선덕왕에 의해 활기를 띠고 추진되어 빠른 시일내에 패강진의 개척으로 마무리짓게 되었다’고 했다[이기동,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서울: 韓國研究院, 1980), 149~150쪽]. 한편, 권영오는 溟江鎭頭上을 역임한 金巖은 김유신 후손으로 김경신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하자 패강진은 赤鳥를 진상하였고, 김헌창의 난에도 패강진은 이에 대항해 擧兵自守하는 등 원성왕가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패강진을 실질적으로 개척한 것이 김경신이라면 즉위 후에도 발해에 사신을 보내는 등 이쪽 지역에 대한 경영과 관련하여 발해와의 교섭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권영오, 『新羅下代 政治史研究』(서울: 해안, 2011), 125~126쪽.

65 원성왕 대의 잦은 재이, 특히 원성왕 4년의 도적 발생은 왕경 중심의 대응에 대한 지방민의 불만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후 국가의 재해 대응양상이 변화하게 되었다

였다. 농업과 관련된 것으로 생산력 증대를 위한 작업이라 하겠다. 농사철이 오기 전 시행한 것인데 아마 북방경계를 담당하는 삭주와 명주를 제외한 7주에서 징발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북방 개척에 따른 발해의 동정을 살피고 잦은 재해로 인한 유망민의 발생과 소요 등 내부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백어의 파견은 790년 3월이지만 사전에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성왕 이후 벌어졌던 잦은 이변(異變)과 재난 등이 발해에 대한 정세 파악 등과 결부되어 사신 파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⁶⁶

그렇다면, 신라의 대발해사 파견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⁶⁷ 신라는 당의 선진 문화를 익히기 위해 유학생과 승려를 파견하였다. 당은 신라를 군자국으로 부르고 신라로 떠나는 사신에게 특별히 당부할 만큼 유학이 성한 나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신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한편, 발해는 713년 당의 책봉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대당외교를 펼쳐 나갔다. 이듬해인 714년 6명의 학생이 국학에 입학하였다.⁶⁸ 또한 장구령이 쓴 「칙발해왕대무에서(勅渤海王大武藝書)」에는 “늘 화풍(華風)을 익힌다”⁶⁹며 유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문왕 대로 이어졌다. 문왕은 ‘문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여기서 문치는 ‘당풍(唐風)’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성명, 지명까지도 당처럼 바꾸는 현상⁷⁰이 이어졌다.

는 의견[이기봉, 「신라 원성왕대의 제이와 정치·사회적 변동」, 『신라사학보』 25(2012), 296~302쪽]도 있다.

66 이문기는 갑작스럽게 발해와 교섭을 시도한 이유 중에는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층의 몰락 등 당면한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 보려는 의도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문기, 앞의 책(2015), 43쪽.

67 사신 파견의 의미에 대해 이기동은 발해와 신라가 시종 적대관계로 있으면서 사신을 보냈지만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이기동, 앞의 책(1980), 212쪽]. 그런데 다른 글에서는 양국 관계의 개선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동, 『新羅社會史研究』(서울: 일조각, 1997), 165쪽]으로 보고 있어 견해가 바뀐 듯하다. 신형식은 전왕 대 있었던 신라의 北征, 일본과의 신라 협공 문제 등으로 쉽게 교류가 추진될 수 없었다고 했다. 신형식, 「7~10세기 新羅의 對北方政策」, 『북방사논총』 10(2006), 22쪽.

68 『玉海』(153) 朝貢 唐渤海遣子入侍, “先天(712~713)中 遣使拜渤海郡王 以所統爲忽汗州都督 始去靺鞨號 玄宗世 朝獻者二十九 開元二年 三月 令生徒六人入學 新羅七人”.

69 『全唐文』(285) 張九齡.

70 濱田耕策(저), 신영희(역), 앞의 책(2008), 96~101쪽.

발해의 유학 수준이 낮지 않았다.⁷¹ 더구나 신라 사신은 당을 오가며 발해 사신을 마주할 기회가 잦았으며 발해의 달라진 위상을 마주했다.

발해는 한때 당과 전쟁을 벌였고, 책봉을 받았지만 독자 연호를 사용하면서 내부적으로 황제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이는 최근 공개된 효의황후묘지명(孝懿皇后墓誌銘)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⁷² 이러한 사실은 신라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⁷³ 따라서 신라가 백어를 사신으로 파견한 의미는 발해를 경쟁 상대이자 외교 상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790년 3월 신라는 백어를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백어는 사료상 확인되는 신라의 첫 대발해사로, 파견 배경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대체로 신라의 불안한 내정이나 국제정세의 변동을 고려해 살펴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원성왕 즉위 당시 대당관계를 중심으로 신라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신라의 내정과 관련해 김주원 세력의 동향이나 신

71 권덕영은 8~9세기 당이 신라에 보낸 사절의 관인계층이 유학과 문장에 뛰어난 엘리트 학자였다면, 발해에 보낸 사절은 환관을 위주로 한 無名의 관리들이었다고 했다. 권덕영, 앞의 논문(2005), 120쪽.

7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编著, 『龙头山渤海王室墓地-1997, 2004~2005, 2008年发掘报告』(北京: 文物出版社, 2025).

73 김진한, 앞의 논문(2023), 147~152쪽. 한편, 이장웅은 790년 정월 赤烏가 출현한 이후 3월에 伯魚를 사신으로 보낸 것은 赤烏와 白魚가 가진 상징성과 관련하여 발해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려는 노력으로 해석하였다[이장웅, 앞의 논문(2023), 165~166쪽]. 글자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伯魚’를 ‘白魚’라고 간주한 해석이다. 그런데 이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만약 白魚의 의미를 논자의 논리대로 “국가의 상징을 오해설로 풀어 赤에 해당하는 周가 白에 해당하는 殷을 멸하는 징조로 이해”하면 발해가 周이고 신라는 殷이 되어 신라 優位가 아닌 劣位에 처하는 상황이 된다. 신라가 자신을 낮춰 발해에 사신을 보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三國史記』 옥산서원본이나 정덕본에 분명히 ‘伯魚’라고 나오는 만큼 ‘伯魚’에 초점을 맞춰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 북변 상황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만큼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았다.

선덕왕이 죽자, 김경신은 김주원과의 왕위계승분쟁에서 승리하여 왕위를 이었다. 하지만 원성왕이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잦은 재난과 이변으로 백성의 유망이 늘어나고 민심이 불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커졌다. 당시 시중으로 김주원의 아들 김종기를 임명한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김주원 세력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안팎의 불안한 상황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실제로 김종기는 임명된 지 1년 9개월 만에 서울에 폭설이 내려 사람들이 얼어 죽은 뒤 시중직에서 내려왔다.

대외적으로 발해 문왕은 재위한 지 54년째로 이미 노쇠하였다. 더욱이 동경으로 천도하였다. 신라로서는 발해의 동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김주원이 강릉 일대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 발해와 연계할 수 있는 불안요소로 작용했다. 신라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발해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 안에서는 발해를 새로운 외교 상대로 인정하고자 했다. 812년 승정(崇正)을 발해에 파견했던 것도 그 일환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790년은 신라와 발해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舊唐書』.
『東史綱目』.
『渤海國志長編』.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日本紀』.
『新唐書』.
『新增東國輿地勝覽』.
『玉海』.
『全唐文』.
『祖堂集』.
『冊府元龜』.
『太平廣記』.

2. 논저

강진원, 「신라 하대 발해 使行의 지향과 결과」, 『중앙사론』 59, 2023, 39~78쪽.
구난희, 『발해와 일본의 교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권덕영,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신라문화』 25, 2005, 93~120쪽.
권영오, 『新羅下代 政治史 研究』, 서울: 혜안, 2011.
권영오, 「원성왕대 태자 책봉과 정국운영」, 『지역과 역사』 51, 2022, 175~208쪽.
권은주, 「8세기말 발해의 천도와 북방민족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1, 2011, 205~235쪽.
今西龍(저), 김선숙(역), 「新羅 中代·下代の 外國關係」, 『신라사학보』 5, 2005, 237~250쪽.
김갑동, 「나말러초 강릉호족의 성립배경과 존재양태」, 『강릉학보』 2, 2008, 99~112쪽.
김경애,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下代 王室의 成立」,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261~298쪽.
김두진, 『통일신라의 사회변동과 종교사상』, 서울: 일조각, 2024.
김상현,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한국사연구』 34, 1981, 1~27쪽.
김수태, 「新羅 宣德王·元聖王의 王位繼承」, 『東亞研究』 6, 1985, 295~312쪽.
김정숙, 「金周元世系의 成立과 그 變遷」, 『백산학보』 28, 1984, 147~194쪽.
김진한, 「8세기 신라의 대발해(對渤海) 인식 변화와 그 배경」, 『한국학』 46-2, 2023, 127~159쪽.

- 김창검, 「新羅 溟州郡王考」, 『成大史林』 12·13, 1997, 35~58쪽.
- 김홍삼, 「신라말 嶺山門 梵日과 金周元系 관련설의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 295~325쪽.
- 노태돈, 『고구려 발해사 연구』, 파주: 지식산업사, 2020.
- 박남수, 「新羅 宗廟制의 정비와 운영」, 『신라사학보』 49, 2020, 1~47쪽.
- 박성혜, 「『삼국유사』 「원성대왕」조의 원성왕 형상」, 『동방문화비교연구』 7, 2017, 31~65쪽.
- 박춘식, 「羅末麗初의 食邑에 對한 一考察」, 『史叢』 32, 1987, 33~96쪽.
- 방학봉, 「渤海는 무엇 때문에 네 차례나 首都를 옮겼는가」, 『백산학보』 39, 1992, 31~46쪽.
- 변대섭, 「廟制의 變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 1964, 56~78쪽.
- 濱田耕策(지), 신영희(역), 『발해국 흥망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서영일, 「新羅 五通考」, 『백산학보』 52, 1999, 591~616쪽.
- 손호호, 「신라 하대 赤烏 출현의 정치적 의미」, 『영남학』 85, 2023, 115~152쪽.
- 송기호, 「발해의 천도와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6, 2004, 113~138쪽.
- 신정훈,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 신정훈,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 서울: 혜안, 2013.
- 신종원,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사학연구』 38, 1984, 1~48쪽.
- 신종원, 『삼국유사에 실린 한국의 왕권신화』, 서울: 주류성, 2024.
- 신형식,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서울: 일조각, 1984.
- 신형식, 「7~10세기 新羅의 對北方政策」, 『북방사논총』 10, 2006, 7~44쪽.
- 안주홍, 「신라 하대 원성왕대의 宗廟와 瑞祥」, 『한국고대사연구』 109, 2023, 313~350쪽.
- 윤철중, 「身空詞腦歌 挿疑」, 『상명대학교 논문집』 14, 1984, 129~150쪽.
- 윤현철, 「발해국 동경용원부의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6, 2007, 41~65쪽.
- 이근직, 「慶州 天官寺址 小考」, 『경주사학』 20, 2001, 69~90쪽.
- 이기동, 「新羅 下代の 湏江鎮」, 『한국학보』 4, 1976, 2~21쪽.
- 이기동,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서울: 韓國研究院, 1980.
- 이기동, 『新羅社會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7.
- 이기백,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서울: 일조각, 1974.
- 이기백, 『新羅思想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7.
- 이기봉, 「신라 원성왕대의 재이와 정치·사회적 변동」, 『신라사학보』 25, 2012, 279~315쪽.
- 이도학, 「古代國家의 成長과 交通路」, 『국사관논총』 74, 1997, 141~177쪽.
- 이문기,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백산학보』 52, 1999, 795~840쪽.

-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2015.
-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上), 서울: 을유문화사, 1995.
-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下), 서울: 을유문화사, 1995.
- 이성시(지), 김창석(역),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서울: 청년사, 1999.
- 이성시(지), 이병호·김은진(역),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서울: 삼인, 2022.
- 이용현, 「통일신라 기간도로 5通의 방향과 범주」, 『민족문화연구』 97, 2022, 127~151쪽.
- 이장웅, 「신라 元聖王의 〈身空 詞腦歌〉와 관련 설화의 역사적 이해」, 『영남학』 87, 2023, 133~174쪽.
- 이재석, 「9세기 일본 사료 속의 울릉도·細羅國」, 『한일관계사연구』 69, 2020, 3~33쪽.
- 이종욱, 「新羅時代의 血族集團과 相續」, 『역사학보』 121, 1989, 43~81쪽.
- 이희덕,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서울: 해안, 1999.
- 임상선,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 『청계사학』 5, 1988, 3~48쪽.
- 전덕태, 「신라의 독서삼품과」, 『한국사시민강좌』 46, 2010, 1~18쪽.
- 정병준,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의 번진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24.
- 주보돈,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1, 2008, 233~279쪽.
- 주보돈, 「신라의 ‘東京’과 그 의미」, 『대구사학』 120, 2015, 1~41쪽.
- 주보돈, 「김춘추와 자장」, 『신라문화』 49, 2017, 1~30쪽.
- 채미하, 「新羅 下代の 五廟制」, 『종교연구』 25, 2001, 123~154쪽.
- 최근영, 「後三國 成立背景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 26, 1991, 6~38쪽.
- 최의광, 「渤海 文王代의 對唐關係」, 『사충』 50, 1999, 1~29쪽.
- 하일식,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 37, 2000, 74~98쪽.
- 한규철, 『渤海의 對外關係史』, 서울: 신서원, 1994.
- 황수영, 『韓國金石遺文』, 서울: 일지사, 1976.
- 황운룡, 「新羅太宗廟號의 紛糾始末」, 『동국사학』 17, 1982, 1~29쪽.
- 古畑徹, 『渤海國とは何か』, 東京: 吉川弘文館, 2018.
- 菅沼愛語,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廣島: 溪水社, 2013.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编著, 『龙头山渤海王室墓地-1997, 2004~2005, 2008年发掘报告』, 北京: 文物出版社, 2025.
- 石井正敏, 『古代の日本列島と東アジア』, 東京: 勉誠出版, 2017.
- 鈴木靖民,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85.
-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2002.
- 三上次男, 『高句麗と渤海』, 東京: 吉川弘文館, 1990.

孫玉良,『渤海武王大武藝 附: 文王大欽茂』,『東北歴史人物傳記 古代卷上』,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6.

赤羽目匡由,『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東京: 吉川弘文館, 2011.

井上秀雄,『新羅史基礎研究』,東京: 東出版, 1974.

鳥山喜一,『渤海史上の諸問題』,東京: 風間書房, 1968.

酒寄雅志,『渤海と古代の日本』,東京: 校倉書房, 2001.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Samguk Sagi.
Samguk Yusa.
Sinjeung Dongguk Yecoji Seungram.
Dongsa gangmok.
Chodangjip.
Ku Tang sǒ.
Sin Tang sǒ.
Cefu Yuangui.
T'aep'yǒng kwanggi.
Okhae.
Chōn Tang mun.
Parhae kukchi changp'yŏn.
Shokunihongi.

2. Books and Journal Articles

Akabame, Masayoshi, *Politics and Society in the Balhae Kingdom*, Tokyo: Yoshi kawa koubunkan, 2011.

An, Juhong, "A Study on the Jongmyo Shrine and the Auspicious Sign of King Wonseong of Silla,"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Vol. 109, 2023, pp. 313-350.

Bang, Hakbong, "Why has Balhae Moved its Capital Four Times," *The Paek-San Society*, Vol. 39, 1992, pp. 31-46.

Chai, Miha, "The Omyoje of the Late Silla Period," *Studies in Religion*, Vol. 25, 2001, pp. 123-154.

Cheong, Byungjun, *The Fanzhen of the Family of Koguryo Refugees Lee Jeong-gi*,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2024.

Choi, Euikwang, "Relations Between Balhae and the Tang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Mun," *Sa Chong*, Vol. 50, 1999, pp. 1-29.

Choi, Keunyoung, "A Study o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 *Guksagwan-nonchong*, Vol. 26, 1991, pp. 6-38.

Furuhata, Tōru, *What is the State of Bokai*, Tokyo: Yoshi kawa koubunkan, 2018.

Ha, Ilsik, "The T'ang-Centered World Order and the Self-Consciousness of Shilla Intellectuals,"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Vol. 37, 2000, pp. 74-98.

Hamada, Kosaku,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Silla Kingdom*, Tokyo: Yoshi kawa koubunkan, 2002.

Hamada, Kosaku, *The Rise and Fall of Balhae*, Shin, Younghee(trans.), Seou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8.

Han, Giuchool, *A History of Balhae's Foreign Relations*, Seoul: Sinseowon, 1994.

Hwang, Sooyeong, *Korean Epigraphs*, Seoul: Iljisa, 1976.

Hwang, Unryong, "The Story Behind the Dispute Over the Temple Name of King Taejong of Silla," *THE DONG GOOK SA HAK*, Vol. 17, 1982, pp. 1-29.

Imanishi, Ryū, "Foreign Relations of the Middle and Late Silla Periods," Kim, Sunsook

- (trans.), *SILLASAHAKPO*, Vol. 5, 2005, pp. 237-250.
- Inoue, Hideo, *Basic Research on the History of Silla*, Tokyo: Azuma, 1974.
- Ishii, Masatoshi, *Ancient Japan and East Asia*, Tokyo: Benseisha, 2017.
- Jeon, Deogjae, "Doksusumpunkwa of Silla," *Korean History for Citizens*, Vol. 46, 2010, pp. 1-18.
- Jilin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Cultural Relics Protection Center, School of Archaeology Jilin University, and Helong City Cultural Relics Management Office, *Longtoushan Cemetery of Bobai Royal Family-Excavation Report of 1997, 2004-2005, 2008*, Beijing: Cultural Relics Press, 2025.
- Ju, Bodon, "Kim Hun-Chang's Riot and Its Character in the Later Period of Silla,"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Vol. 51, 2008, pp. 233-279.
- Ju, Bodon, "Donggyeong in Silla and Its Meaning," *DAEGUSAHAK*, Vol. 120, 2015, pp. 1-41.
- Ju, Bodon, "Kim Chunchu and Jajang,"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Vol. 49, 2017, pp. 1-30.
- Kang, Jinwon, "Purpose and Results of the Dispatch of Envoys to Balhae in the Latter Period of Silla," *Chung-Ang Saron*, Vol. 59, 2023, pp. 39-78.
- Kim Heungsam, "A Critical Study on Relation Doctrine of Bumil on the Mountain Gul Sect and Kim Chuwon Lineage in the Late Silla,"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Vol. 50, 2008, pp. 295-325.
- Kim, Changkyum, "A Study on the King of Myeongju in Silla," *The Historical Journal*, Vol. 12 · 13, 1997, pp. 35-58.
- Kim, Doojin, *Social Change and Religious Thought in Unified Silla*, Seoul: Ilchokak, 2024.
- Kim, Gapdong, "The Background and Existence of the Gangneung Powerful Families in the Late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s," *Gangeung Journal*, Vol. 2, 2008, pp. 99-112.
- Kim, Jeongsook, "The Formation and Changes of the Kim Joowon Lineage," *The Pack-San Society*, Vol. 28, 1984, pp. 147-194.
- Kim, Jinhan, "The Changes in and Background of Silla's Perception of Balhae in the 8th Century," *Korean Studies Quarterly*, Vol. 46, No. 2, 2023, pp. 127-159.
- Kim, Kyungae, "Ascending the Throne of King Wonseong and Formation of the Late Era Royal Family in Silla,"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Vol. 41, 2006, pp. 261-298.
- Kim, Sanghyun, "The Formation of Legendry Manpasikjök(萬波息笛) and its Meaning,"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34, 1981, pp. 1-27.
- Kim, Sootae,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King Sunduk and King Wonsung in the Silla Dynasty,"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Vol. 6, 1985, pp. 295-312.
- Ku, Nanhee, *Exchange between Balhae and Japan*, S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7.
- Kwon, Deukyoung, "A Characteristic of T'ang(唐) Envoy Dispatched to Silla(新羅) Dynasty in Eighth and Ninth Century,"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Vol. 25, 2005, pp. 93-120.
- Kwon, Eunju, "The Transfer of the Capital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Northern Races of the Balhae(渤海) in the End of the 8th Century," *The Koguryo Balhae Yonku*, Vol. 41, 2011, pp. 205-235.
- Kwon, Youngoh, *A Study of the Late Silla Political History*, Seoul: Hyeon, 2011.
- Kwon, Youngoh, "The Installation of Crown Princes and N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Reign

- of King Wonseong,” *CHIYEOK KWA YEOKSA*, Vol. 51, 2022, pp. 175-208.
- Lee, Byeongdo, *Annotated Translation Samguk Sagi*, Seoul: Eulyoo, 1995.
- Lee, Dohack, “The Growth of Ancient States and Transportation Routes,” *Guksagwan-nonchong*, Vol. 74, 1997, pp. 141-177.
- Lee, Geunjik, “A Study on Ch’ongwansagi(天官寺址) of the Silla Dynasty,” *THE KYOUNG-JU SAHAK*, Vol. 20, 2001, pp. 69-90.
- Lee, Hidok, *Korean Ancient Views of Nature and the Politics of the Rule of Virtue*, Seoul: Hyeon, 1999.
- Lee, Jaeseok, “Study on the Seraguk(細羅國) and Ulleungdo Island(鬱陵島) in the 9th Century,”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Vol. 69, 2020, pp. 3-33.
- Lee, Jangwoong,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Singongsanoega by King Wonseong of Silla,” *Yeongnamhak*, Vol. 87, 2023, pp. 133-174.
- Lee, Jongwook, “Kinship in Silla Society,” *The Korean Historical Review*, Vol. 121, 1989, pp. 43-81.
- Lee, Kibaik, *A Study of the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Silla*, Seoul: Ilchokak, 1974.
- Lee, Kibaik, *A Study of the Thought History of Silla*, Seoul: Ilchokak, 1997.
- Lee, Kibong, “Natural Disasters and Political, Social Fluctuations During the Period of King Wonseong in Silla,” *SILLASAHAKPO*, Vol. 25, 2012, pp. 279-315.
- Lee, Kidong, “The Paegangjin in the Late Silla Period,” *Hankuk hakpo*, Vol. 4, 1976, p. 2-21.
- Lee, Kidong, *A Study of Silla Social History*, Seoul: Ilchokak, 1997.
- Lee, Kidong, *The Silla Bone-Rank System Society and the Hwarang group*,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1980.
- Lee, Moonkey,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Reform of the Omyoje During the Reign of King Hyejong of Silla,” *The Paek-San Society*, Vol. 52, 1999, pp. 795-840.
- Lee, Moonkey, *A Study of Late Silla Politics and Society*, Seoul: Hakyoun, 2015.
- Lee, Seongsi, *Ethnic Groups and States in Ancient East Asia*, Lee, Byeongho & Kim, Eunjin(trans.), Seoul: Saminbooks, 2022.
- Lee, Seongsi, *Royal Authority and Trade in East Asia*, Kim Changseok(trans.), Seoul: Chungnyunsa, 1999.
- Lee, Yonghyeon, “Directions and Categories of Five Main Roads i.e. 5 Tong(通) in Unified Silla,” *Korean Culture Research*, Vol. 97, 2022, pp. 127-151.
- Lim, Sangseon, “A Study on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of Balhae,” *Cheonggyeo History*, Vol. 5, 1988, pp. 3-48.
- Mikami, Tsugio, *Koguryo and Balhae*, Tokyo: Yoshi kawa koubunkan, 1990.
- Noh, Taedon, *A Study of Koguryo and Balhae History*, Paju: Jisik-sanup Publishing, 2020.
- Park, Choonsik, “On the Sik-eub under the Late Shilla and the Early Koryo Dynasties,” *Sa Chong*, Vol. 32, 1987, pp. 33-96.
- Park, Namsoo,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Royal Ancestral Shrine System of Silla,” *SILLASAHAKPO*, Vol. 49, 2020, pp. 1-47.
- Park, Seonghye, “A Study on the Image of King Wonseong(元聖王) in the Wonseogdaewang (元聖大王) Article in Samguk Yusa(三國遺事),” *Korea society of East Asia comparative literature*, Vol. 7, 2017, pp. 31-65.
- Pyon, Taesup, “The Development Process of Silla Society Viewed Through the Evolution of the Shrine System,”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Vol. 8, 1964, pp. 56-78.
- Sakayori, Masashi, *Balhae and Ancient Japan*, Tokyo: Azekura Shobo, 2001.

Seo, Yeongil, "A Study of the Five Transportation Routes of Silla," *The Paek-San Society*, Vol. 52, 1999, pp. 591-616.

Shin, Hyongsik, *A New Study of Ancient Korean History*, Seoul: Ilchokak, 1984.

Shin, Hyongsik, "On The North-ward Policy of Shilla in the 7th-10th Century," *Dongbuga Yeoksa Nonchong*, Vol. 10, 2006, pp. 7-44.

Shin, Jongwon, "A study on the Samguksagi's Jesaji,"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Vol. 38, 1984, pp. 1-48.

Shin, Jongwon, *The Myth of Korean Royal Authority Recorded in the Samguk Yusa*, Seoul: Juluesung, 2024.

Shin, Junghoon, *Ancient Korean Auspicious Signs and Politics*, Seoul: Hyeon, 2013.

Shin, Junghoon, *Politics and Royal Authority in 8th-Century Silla*, Paju: KSI, 2010.

Son, Heungho,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Appearance of the Red-crow in the Late Silla Dynasty," *Yeongnamhak*, Vol. 85, 2023, pp. 115-152.

Song, Kiho, "Capital Relocations of Balhae,"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Vol. 36, 2004, pp. 113-138.

Suganuma, Aigo, *International situation and its Development in Eastern Eurasia From the Late 7th to the 8th Century*, Hiroshima: Keisuishisha, 2013.

Suzuki, Yasutami, *Research on the History of Ancient Foreign Relations*, Tokyo: Yoshikawa Koubunkan, 1985.

Toriyama, Kiichi, *Various Issues in the History of the Balhae*, Tokyo: Kazamashobo, 1968.

Yin, Xuanzhe, "On the Two Issues of Donggyeong Yongwonbu of Balhae," *Dongbuga Yeoksa Nonchong*, Vol.16, 2007, pp. 41-65.

Table

Table 1. The Dispatch of Envoys by Silla and Balhae in the Mid to Late 8th Century

Table 2. List of Silla's Envoys to Japan